

# 전차(戰車), 십자가에 달리다. 영화 ‘퓨리’



남정욱 (숭실대 교수)

작가 출판 영화 방송 등 문화부문에 오랫동안 일했고 숭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결혼' 등 다수가 있다

영화 관련 칼럼을 쓸 때 꼭 참고 하는 것이 해당 영화의 리뷰다. 보고 베끼려는 게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구상한 글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피해가기 위해서다. 영화 ‘퓨리’를 쓸 때도 그랬다. 영화 속에서 보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상징과 은유가 너무나 명확하여 분명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있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소생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영화를 해석한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리뷰는 내가 성경을 잘 몰라 놓치고 지나갔거나 분명 메시지가 있을 텐데 잡아내지 못했던 장면들에 대한 해석이 절묘하여 무릎을 치기도 했다. 결국 처음의 의도를 접고(글 쓰는 인간들은 발상 자체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중시한다) 기독교가 아닌 ‘전차’ 중심으로 칼럼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내내 아쉬웠다. 해서 늦었지만 그 리뷰들을 일부 인용하며 소생의 생각을 보태거나 덧입히는 형식으로라도 (나쁘게 보면 장물 놓고 경매 붙이는) 이 영화

를 소개하려고 한다. 기독교인이라면 영화를 보고 난 뒤의 감상평이 대동소이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리뷰가 올라오는 것이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기는 하다. 리뷰 중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이 임용섭 한세대학교 구약학교수의 글인데 성경학자이다 보니 전문성에서 한 수 위다.

##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결전

영화의 첫 장면은 자욱한 화약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흰 말이다. 2차 대전인데 웬 말이냐고? 사실이 그렇다. 전쟁을 앞두고 각국이 기계화에 매달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도보로 행군하고 말이 끄는 마차로 군수품을 날랐다. 물론 실제 전투에 기병이 투입되기도 했다(6·25전쟁 때도 말을 타고 싸운 기록이 있다). 전쟁터의 기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독일 기갑사단을 맞아 장렬하게 전사한 폴란드 기병대다. 멋지지 않은가. 기

WAR NEVER ENDS QUIETLY

BRAD PITT

# FURY

NOVEMBER



갑 사단을 향해 달려가는 중세적 기병대의 결기라니.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사실이다. 그들이 독일 전차에 몰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려진 것처럼 고의로 기갑부대를 향해 돌격한 일은 없었다. 만약 그런 돌격이 진짜로 있었다면 미안하지만 폴란드 기병은 제 정신이 아니거나 돌이킬 수 없는 돌머리일 것이다. 다시 흰 말 이야기다. 영화 일을 해 봐서 안다. 감독은 아무 의미 없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미장센(영화에서의 화면 구성)을 꾸미는데 절대 끌어들이지 않는다. 분명 의미가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여기에 대한 임용섭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요한계시록에서 백마 탄 용사는 '짐승'이 모은 왕들과 군대를 모아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여기서 짐승은 나치 독일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백마를 타고 적들과 싸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슬그머니 암시하는 것이다. 영화 제목 '퓨리(Fury)'는 영화 속 주인공들

이 타고 다니는 전차의 별명이다. 성경에는 '진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한다. 전차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인 셈이다. 전차 전투 씬에서 '퓨리'와 함께 전투에 나가는 전차는 모두 네 대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나가는 네 마리 말이 나온다. 네 대의 연합군 전차와 독일 티거 전차가 맞붙었을 때 연합군들은 적군을 '짐승(beast)'이라고 부른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

## 영화 속에 숨겨진 메시지 - 구에라 산타

전차가 네 대인 이유는 리뷰를 보고 알았다(1:4는 독일 전차와 연합군 전차의 전력이 비슷해지는 비율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흰 말을 타고 있는 것이 독일 장교다. 주인공은 그 장교를 말에서 끌어내려 칼로 찔러 죽인다. 그리고 말은 고삐를 풀어 보내준다. 흰 말을 타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이며 주인공

은 흰 말을 그것을 탈 자격이 없거나 속이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들을 살펴보자. 통상적으로 전차에 탑승하는 인원은 다섯 명이다. 지휘관인 커맨더는 해치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공격과 수비의 지휘하는데 ‘퓨리’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이 역할을 맡았다. 전차포에 포탄을 집어 넣은 사람을 로더라고 한다. 잘 모르는 배우다. 조종수는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역시 낯이 설다. 나머지 둘은 포수인 건너와 전방 기관총 사수인 머신 건너인데 건너는 샤이아 리보프, 머신 건너는 로건 레먼이 맡았다.

샤이아 라보프는 세례 요한의 이미지다. 항상 성경책을 끼고 살아 별명이 바이블이지만 전투에 임해 적을 죽이는 데에는 단호하다. 영화 초반 바이블은

찬송가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를 흥얼거린다. 중요한 복선이다. 독일군과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교차로(Crossroad)이기 때문이다. 로건 레먼은 예수가 특별히 사랑했던 요한이다. 영화 속에서 다른 두 명의 소대원들은 성경에서처럼 로건 레먼을 질투하고 시기한다. 영화에서 로건 레먼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다. 전쟁 영화를 보면 대부분 신참인 도덕주의자들이 꼭 한 명씩 나온다(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따위를 묻는). 이들은 영화가 끝날 무렵엔 전사(戰士)로 환골탈태한다. 그렇다면 브래드 피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다. 마지막 결전이 있기 전 브래드 피트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소대원들과 식사를 한다. 최후의 만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장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영화 속에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





로 뜬금없다(소생이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구나’라고 처음 생각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교차로에서 전차는 고장으로 멈추고 브래드 피트는 그곳에서 방어전을 펼치기로 한다. 도망칠 수 있는데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교차로(십자가)라고 말하며 전차에 남은 브래드 피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예루살렘 입성 후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아는 예수의 이미지다. 브래드 피트는 전차 안에서 소대원들과 술을 나눠 마시고 담배를 같이 피운다. 담배 연기 위로 바이블이 읊조리는 성경 말씀이 흐른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없이 끄덕이는 소대원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구에라 산타(聖戰)인 것이다.

이것 말고도 영화에는 기독교의 상징이 차고 넘친다. 영화는 마지막에 교차로 위 전차의 모습을 부감으로 잡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십자가의 모습이다. 전쟁 영화다보니 잔인한 장면이 많다. 그러나 감수하고라도 보시기를 권한다. 재미와 감동과 묘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참고로 왜 탱크를 계속 전차라고 부르는지 의아하신 분 있을지 모른다. 탱크는 연합군이 신에 병기를 공수하면서 위장을 위해 붙인 별명이다. 탱크라고 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쓰려면 전차라고 하는 게 맞다. 